

2월27일(월)/약4:11~12

**제목: 비방은 최고의 죄**

성경은 어떤 특정인을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악의적인 뒷 공론을 유발하는 자를 율법(성경)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한다(11절). 그런 자는 거룩한 성경의 심판자가 된다고 한다(11절).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도둑놈이라고 한다(12절). 유일한 판정자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12절).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타인을 재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재판할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건설적인 비판은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최악의 죄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2절).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항상 남을 비방하는 습성을 가진 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신변이 상당히 위험해 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항상 불쾌하게 만드는 자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2월28일(화)/약4:13~17

**제목: 마음 편하게 삽시다**

어떤 사업가가 “내가 이 도시에서 1년을 머물면서 큰 돈을 벌 계획이다” 고 우쭐대며 말했다(13절).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할뿐 아니라 자기 생명이 내일 붙어있을 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하였다(14절). 야고보는 차라리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15절).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쭐대는 것은 악이라고 하였다(16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오만불손해지기 쉽다. 머리가 나쁜 사람 일수록 자기의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우쭐대며 즐겁게 사는 경향이 있다. 어리석은 자일수록 자기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장중에 맡긴다. 그래서 현명한 자가 안전하게 산다. 인간이 계획은 할 수 있으나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와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대비할 수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편하게 맡기고 사는 것이 상책이다.

2월29일(수)/약5:1~6

**제목: 못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야고보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서도 일꾼의 품삯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살 켜 부자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하였다(1절). 품삯을 때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파렴치한 부자들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2~4절). 야고보는 이같은 경고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의 종말도 선택하는 것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호사하며 연락하는 길을 택한 사람은 각오해야 한다. 쾌락의 종말은 탄식이다. 파렴치한 부자들의 또 하나 죄는 의인을 골라서 죽인 일이었다(6절).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의인을 몰아세워서 죽였다. 이렇게 악인은 본능적으로 의인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의인을 만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의인을 만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혹시 나의 본성 속에 선하고, 영성있고, 실력있고, 유능하고, 인기있는 동료들 배제하고픈 욕망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악하거나 못났다는 증거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난 사람 손에 제거되었다.

3월1일(목)/약5:7~11

**제목: 그래도 인내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대 속에 살았다. 그래서 야고보는 남은 수년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였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7~8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헛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모든 농부는 그 자연의 활동을 참고 기다렸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곤란과 시험이 있다 해도 서로 시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9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위대한 신앙은 폭발할 것 같은 불만을 품고, 의혹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욕의 신앙이었다(11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앓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잡념이 든다 하여도 만일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지 않고 있다면, 신앙의 그루터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인생의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친절하시며 매우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자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3월2일(금)/약5:12

### 제목: 맹세하지 마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교훈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내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  
죄 받음을 면하라” (12절). 아마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맹  
세가 만연하였던 것 같다. 당시 교회 안에 맹세를 상투적으로 남  
용하는 일이 빈번 하였다.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  
고 했다. 이것은 함부로 ‘서약’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남발하면 소위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죄받음을 면하려면 함부로 입을 열  
어서는 안된다(12절). 무서운 말이다.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맹세를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이 없다는 뜻이다. 정  
직한 사람은 맹세가 필요없다. 맹세를 자주하면 할수록 다른 사  
람들은 그 맹세를 가볍게 보게 된다. 맹세를 자주 한다는 것은 낙  
인이 찍혔다는 뜻이다. 사람의 최선의 보증 수표는 맹세가 아니  
라 인격이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항상 맹세하는 경향  
이 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http://www.ansan1.org)